

GRACE 선교소식

2024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41명 (자체 파송 74%)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베트남 사랑의 불꽃!

GMI 총재 한기홍 목사

베트남 사랑의 불꽃 3기에는 72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팀 멤버는 미국에서 35명, 사할린에서 14명,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 17명으로 총 66명이 연합하여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4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베트남까지 오셔서 김성웅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참가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10월 27일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집회입니다. 이 법안은 이름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정하자는 것인데,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끔찍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고,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교육을 받는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유1:7, 레20:13, 롬1:27). 교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대하7:14).

10월 28~30일 KIMNET(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KIMNET 총회 (10/28-10/30)
- 라스베이가스 중앙교회 임당 부흥성회 (담임 임인철 목사님) (11/13-11/1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워크 컨퍼런스와 선교 부흥회가 열립니다. 3일 동안 저녁마다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국 Thailand

안영식 목사

태국 TD #1 를 마치고

GTD Thailand #1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콕에서 나콤파눔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며 그레이스 타임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며 성령님께서 이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0.1%라고

들었는데, 현지 사역자 말이 0.01-0.02%라는 말을 들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그곳을 덮고 있어서, TD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명의 New Pescadores들이 교회가 되어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 Myanmar

한규설 / 김정미 선교사

태풍 '야기'로 인해 미얀마에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384명, 가옥 6만 5천여 채 교량 24개, 학교 건물 375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군사정권이 이례적으로 외국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전에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겹쳐 서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호산나 교회

교회를 건축한 지가 2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비가 셉니다. 이유인즉 함석을 고정해 주는 못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다른 하나는 함석이 삭아서 구멍이 났습니다. 이에 업자를 불러 실리콘을 덧씌워주고 구멍난 곳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다 건축경험



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호산나 교회는 여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일주일에 한번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초청을 하고 있지만 한 두 번 올 뿐 꾸준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매주 8~9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력교회

협력교회 부설 유치원은 나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세를 지원해 주는 유치원의 원생도 40명입니다. 그러나 낮은 전압으로 인하여 펌프를 돌릴 수가 없어서 물을 사다쓰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층은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여름에는 너무나 덥다고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집세도 인상할 예정이어서 다른 건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층은 유치원과 방과후 공부방, 2층은 여학생 4명과 교사 2명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자 그룹홈

몇차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은 양곤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의 이름은 '빠웅고만'이고 중학교 1학년(13살)입니다. 아이의 심성이 착하고 입덜 것이 없을 정도로 생활을 잘 해서 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인 아버지가 7월에 전투 도중 사망하였



습니다. 경찰이 되기 전 마약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었습니다. 경찰도 내전으로 인해 병력보충이 필요했던 군부가 지원자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안의 장남이고 밑으로 3명의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이름은 '탄야하웅'이고 초등학교 1학년(8살)입니다. 형제가 9명인 집안의 6번째로 아직도 오줌을 싸서 보모가 이불 빨래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캐서 돈을 버는데 매우 가난합니다. 고향에 있을 때 엄마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 준 적이 없었다고 불평했는데 자식이 9명이나 되다보니 엄마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학원

평일에 초급반과 주말에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다른 이들은 외노자로 일하러 가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에 낙담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그들의 희망을 찾고 있어 좋은 일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집트 Egypt

김엘리아 / 양미래 선교사

저희는 바쁜 미주훈련을 마치고 9월 22일 파송식을 하였습니다. 7개월간 긴 훈련을 마치니 아쉬움도 많지만 곧 열방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에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김엘리아 선교사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여권에 미국영주권입니다. 장기 선교사로 작년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인터뷰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인터뷰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이집트에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없기에 훗날을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자격조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루속히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인터뷰가 잡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집트로 가는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한달동안 애굽으로 갈 준비가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엘리아 선교사가 시민권 인터뷰 잘 보고 떠날 수 있도록
2. 이집트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보



3. 금자리를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정착하고 현지 적응할 수 있도록
3. 만남의 축복이 넘치길! 예비하신 영혼들과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GOD'S WORD, IN EVERY LANGUAGE, IN EVERY LIFE

GBT 학술부에서 화용론 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운용 선교사는 의미론을 먼저 해야 화용론에 대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의미론을 먼저 강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강의를 들었을 때 의미론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었지만, 한번도 듣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로 의미론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미론 관점에서 수동구문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가 줌으로 참여하였고, 성경번역을 하면서 수동구문에 관해서 궁금해하던 것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술부에 의미론 전체를 강의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선교사들에게 참고 도서와 논문목록을 공유하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의미론에 관련된 217쪽 분량의 강의 노트와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하루에 5~7시간씩 줌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미론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해 학술부에서 강의 동영상

상을 녹화해서 공유해 주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은 언어학에 관심이 있고, 성경번역을 하고 싶다는 모교회의 전도사님 1명과 타 단체 선교사 1명 그리고 GBT의 선교사들 약 20명이 꾸준히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의미론의 여러 주제 중에서 성경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어 의미와 문장 의미를 나누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화용론은 제외하고, 고정된 의미 부분만을 다루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따라 강의에 사용하였던 강의 노트를 수정 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보안 문제로 사진을 올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서포터로 섬기고 있는 우아레 부족의 신약성경 봉헌식이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약 1,300명의 많은 사람이 모여 이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하하였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저희는 봉헌식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구약성경 봉헌식에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우아레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성경 헌금을 보내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헌금은 모두 우아레 선교사님께 잘 전달해 드립니다.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는 오디오 성경으



로 그들은 발일할 때나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살아나서 그들의 마음을 휘감아 주실 것이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파쇄하고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남영미 선교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영미 선교사에게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암 투병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동역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레바논 Leban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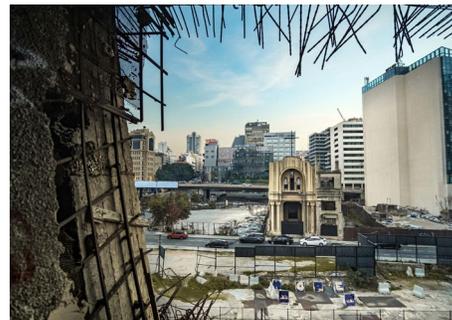
장OO / 서OO 선교사

긴급히 피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한국정부에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하여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450만의 국민과 200만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난민이 같이 살던 레바논은 이제 모두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피난민을 구호함에 현지의 교회가 앞장섰고 합하

여 선을 이루는 구호에 한발 물러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운영하던 난민학교는 발빠르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현지 리더십들이 위기를 잘 대처하여 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피난민으로 레바논 외부에서 지내야 하는 기회에 10월은 한국에서 주한 레바논대사관과 보건부와 협력하여 약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국제난민선교회(GRAM)의 리더십들과 터키 전역의 난민캠프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허락된다면 12월은 가족도 만나



고 파송 교회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들 잘 마무리가 되고 지지치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탄자니아 Tanzania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노아학교

할렐루야! 연초에 아이들 인원수를 10명 더 늘려 50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빵과 우지(죽)을 먹다가 올해부터 밥을 먹이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 생선, 여러가지 야채 반찬에 식사시간만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자기 접시에 담긴 고기 덩어리와 친구들의 고기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와서 한끼 잘 먹다 보니 아픈 아이들도 없어 100% 출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한끼만 잘 먹어도 건강하고 키도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에서 교회 단기선교팀이 오셔서 생일잔치를 함께하며 선물도 풍성하게 주고 이슬람 아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버그린 학교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전쟁터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초부터 매년 학교등록을 해야하고 매년 등록비를 내야하는데 등록비를 이미 연초에 납부했고, 감사 6명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감사를 진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되었는데, 학교마다 교육부 감사가 끝난 후에 허가증을 내준다고 하면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도 허가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동료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방승카메라를 동원하여 불시에 학교에 쳐들어와서 종교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슬람 아이들까지 함께 참석시켜 예배를 드리는지, 가방에 성경책이 있는지 가방을 다 뒤지고 점검하며 종교에만 집중감사를 하는 교육부의 실체를 보면서 이곳이 영적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들이 무너질 위기에 있음을 느낍니다. 이땅의 학교마다 다음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질수 있도록 동역자님들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10월 15일~18일까지 7학년 학생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봅니다. 성적순으로 진학할 중학교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받아 최고 좋은 학교에 무료로 다니는 것이 꿈이기에 잘 가르쳐서 혜택 받고 다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에버그린 학교 건축

몇년 전부터 땅을 사고 건축허가만 받기까지 3년이 걸려 진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올해 초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와 1층 교실 벽돌 쌓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현재는 기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소우기철이 시작하여 끝나게 되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데 덥고 좁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또 한해를 보내게 되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교실다운 교실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17년동안 인내하며 기도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건축되어가는 교실을 바라보며 올해는 아이들에게 나은 환경을 줄수 있을거라고 기대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에셀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재

정을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원하며, 함께 동역하신 동역자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대학

제 10기 신입생을 모집하여 등록하고 8월 27일에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성경대 신입생들에게 이제 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절대로 편하게 지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도전했습니다. 왜냐면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마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만히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리가 만무하고 실새없이 공격하여 어떻게든 공부를 중단하게 하는 영적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명의 학생들은 시작하자마자 신약성경 통독을 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였고, 지금 매주 월, 화요일에 제 1팀 “믿음의 기초와 초자연적인 삶” 과목을 공부하며 토요일에는 기도과 말씀묵상, 전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10기 성경대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훈련되어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 나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컴퓨터 교육

라흐마와 아모르가 졸업하여 떠나 보내고 새로운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돼서 안타깝게도 컴퓨터 교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Morocco

장원 선교사

최근 건강검진 및 건강상태

2016년에 뇌경색이 발발하여 첫 2년은 병원 생활을 하고 그 이후는 양산 그리고 강원도 속초에서 재활운동을 하며 현재까지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있습니다. 뇌경색 재발율이 4년에 25%, 10년에 50%인데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된 것은 목사님 및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님께서 보호해주셨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몇 번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위기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 건강검진인 위장및 대장 내시경 검사로 뇌경색약인 항혈전제를 6일 정도 중단하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 2cm의 용정을 제거하고 항혈전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제거 된 용정부분에서 지혈이 안되고 2~3리터의 피가 흘러나와 위기를 겪었으나 마침 그 날 강영철 목사님께서 전화로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벽에 피가 서서히 멈추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현기증 및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으

로 위, 대장, 당뇨, 간치수 등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선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거한 용정 1개와 원래부터 안고 있는 고혈압 외에는 다른 병은 없었습니다.

재활운동과 인지치료

2016년 처음 뇌경색 발발시 우측 팔 다리 영구장애 진단을 받고 언어장애가 와서 휠체어를 이용했고 글씨도 급성기 및 수년간의 재활 및 인지치료 결과 우측 다리의 장애 이외에 언어 및 글쓰기 등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뇌경색에 좋은 미세한 손동작 운동인 글쓰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수년간 훈련하여 처음 더듬거리는 말씨가 지금은 또렷하고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인지훈련과정에서 앞으로 선교에 도움이 되기위해 한국어 교사 및 영어교사 자격증들을 수년간에 주님의 은혜로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체 걷기훈련을 병행하지 못해 체중조절을 못해서 내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 정상체중으로 조절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현재 다른 말하기, 글쓰기, 상황파악하기 등의 인지적인 부분은 수년간의 집중훈련으로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꾸준한 걷기운동



을 지속 못해서 체중조절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를 위해 건강한 신체를 위해 꼭 체중조절에 성공하겠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훈련원 때 걷기 및 식이요법으로 다시 재개하여 다시 한번 체중을 감량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지치료에 성공한 것처럼 체중조절에도 성공하겠습니다. 제 육신을 몇 번이나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내년부터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선교의 소명을 묵묵다하도록 감당하겠습니다.

뇌경색 발발부터 현재까지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 India

정희중 / 정문희 선교사

부흥집회

해마다 이맘때에는 인도 힌두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힌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힌두교 우상을 가지고 시



가 행진을 하면서 힌두교 명절을 지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상기후로 날씨와 재정과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기차로 4시간 걸리는 아산술이라는 곳에서 힌두 명절에 갈 곳이 없어서 이곳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속으로 뜨겁게 느꼈고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훈련

공동체 훈련 중 자신의 죄를 종이에 적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캔들 피어터를 할 때에 주님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과 함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열심있는 구령의 열정과 함께 집회 끝자락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옵 시옵소서” 찬양을 하면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로운 집회를 마쳤습니다.

간증문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2기

G7 / 차정진 집사

저는 약 10년 전 은혜한인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선교에 동참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치열한 직장 생활과 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정작 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살바도르로 떠나게 된 계기는 사실 신앙적인 결단보다는, 제가 속한 그룹 7이 새로 맡은 나라였고 마침 직장에서 휴가를 쓸 수 있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엘살바도르는 처음에 호감이 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검색창에 ‘엘살바도르’를 입력하면 높은 살인율로 유명하고, 갱단 활동과 관련된 뉴스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녀오니 그곳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며 막연한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LAX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인카운터를 하던 중, 제 마음을 깊이 울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엘살바도르는 예루살렘에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태평양 연안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 끝에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 항상 영혼 없는 상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직접 밟고 중보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정을 소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위가 크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지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열정이 그 더위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 형제자매들의 큰 눈망울에 가득한 열망과 해지고 낡은 성경책에 빼곡히 적힌 성경 공부의 흔적들을 보며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

니다. 반면 저는 성경책이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로 서랍장 속에 두곤, 예배 시간에도 성경책 보다는 스마트폰이나 PPT에 의존하였죠. 매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멀리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분들이 미국에 사는 저보다 훨씬 충만하게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댄에는 그룹에서 늘 하였던 인카운터를 매개 삼아 예수님을 전하러 갔지만,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갔지만, 제가 되려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에 지쳐 있는 분들과, 교회의 허리인 30-40대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얀마 한규설 / 김정미 선교사

1. 미얀마가 안정화 되도록!
2. 새로운 사역을 주소서!
3. 동역자들과 한 마음 되게 하소서!
4.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5.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6. 재정어 어려움 없게 하소서!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1. 모국어 성경이 필요한 부족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전해져서, 성령의 바람과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신약성경 말씀이 우아레 부족의 모든 영혼에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김운용 선교사와 언어학 자문이나 지식이 필요한 성경번역 선교사님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남영미 선교사의 난소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주님이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장래와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백만의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이 참 영생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2. 제 10기 성경대학 9명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공부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에버그린 4, 7학년 정부시험이 10월에 있는데 집중력과 지혜주셔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에버그린학교가 건축이 완공되어 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생령수처럼 흘러 나오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직장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에버그린과 노아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구원 받고 꿈과 비전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7. 오효숙 선교사가 자가면역성 간염이 완치되어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도 정희중 / 정문희 선교사

1.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순돌본 교회 지붕 보수 공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집회 때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면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3. 우기철이 끝난 지금 이상 기후로 계속 집중 호우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되는 곳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 방과후 학교 TV, 교회 예배에 필요한 기타 컴퓨터를 구입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24 KIMNET 국제선교지도자포럼

10/28-10/30(월-수), 장소: 은혜한인교회

2024 KIMNET 국제선교지도자포럼 (국선지포) Round Table
 International Missional Leadership Forum and KIMNET- GAMNET Annual Meeting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October 28 (Mon.) 3:00pm - October 30 (Wed.) 9:30pm

Date	Monday (28)	Tuesday (29)	Wednesday (30)
7:00-8:00am		아침 식사 (식당 -> 다음세대 이양 성경 강해: Wedding Chapel)	
8:15-9:15am		찬양: GMI EM 찬양팀 사회 및 기도: 최병철 목사 설교: 조영훈 목사 (BSH)	찬양: GMI EM 찬양팀 사회 및 기도: 손아브라함 목사 설교: 김항신 목사 (GMI EM)
9:20-10:20		Session 1: 전도 및 양육 (60m) 그림일대일전도양육 송상철 목사 (GSGM-세한장로교회)	Session 4 (60m) 선교적 모델 교회 방안 한기홍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10:20-10:50		Table Discussion & Share (30m)	Table Discussion & Share (30m)
10:50-11:00		Break Time / Group Picture	
11:00-12:00pm		KIMNET 총회	GMI 사역 Tour
12:00-1:15pm		점심 시간 (식당 -> Forum: Wedding Chapel)	
1:20-2:40		Session 2: 돌봄 및 Care (80m) 김경식 목사 (GSM) 김상돈 목사 (WVS)	Session 5: 전방개척선교 (80m) 이재환 선교사 (COME) 강요한 선교사 (InterCP)
2:40-3:10		Table Discussion & Share (30m)	Table Discussion & Share (30m)
3:10-3:25		Break Time	
3:30-4:50	Registration	Session 3: 자비할 선교 (80m) 박현리 선교사 (UBF) 송재임스 총장 (Midwest)	Session 6: 양방향 세대 선교 (50m) 김정환 선교사 (SON)
	개회 예배: 4:30pm		
4:30-5:30	사회: 한기홍 목사 환영인사 및 내인소개: 최일식 목사 찬양: GMI 찬양팀 기도: 송성우 목사 설교: 신동우 목사 성찬사: 진례 한기홍 목사 축도: 고인호 목사 KWMC 전임의장	Table Discussion & Share (30m) (4:50-5:20 pm)	사회: 최일식 목사 Panel Discussion / 종합 토의
5:30-7:00 pm	환영식사	저녁 시간 및 네트워킹	
	저녁집회: 선교도전과 열방을 품는 선교대회 (비전센터 분당)		
7:00-9:30 pm	사회: 안영식 목사 찬양: GMI 찬양팀 기도: 최빅토리아 목사 선교 도전: 황병 선교사 (호주) 특별찬양: 선교 모듬북팀 설교: 권준 목사 (Seattle 형제교회) 기도회 인도: 한기홍 목사	사회: 안영식 목사 찬양: GMI 찬양팀 기도: 박성진 목사 선교 도전: 임성익 선교사 (파라과이) 특별찬양: GMI 설교: 황성주 목사 (이름 회장) 기도회 인도: 한기홍 목사	사회: 한기홍 목사 찬양: GMI 찬양팀 기도: 이상진 장로 선교 도전: 한도수 선교사 (브라질) 특별찬양: GMI 설교: 최석봉 목사 (민목동 대명교회) 기도회 인도: 한기홍 목사

★ 저녁집회는 선교 부흥회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2일 목자 부흥회는 29일 선교 부흥회로 대체 되었습니다.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 개척선교 (10/31-11/12)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엘살바도르 AFA2기 (11/3-11/10)
S/L: 안영식 목사
렉터: 피터이 안수집사
문의: 차윤석 안수집사 (714-334-2340)
- 쿠바 신학교 프리덤 (11/10-11/16)
S/L: 송중호 목사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필리핀 GMI Vision Camp & 인카운터 6기 (11/27-12/5)
S/L: 김흥권 목사
문의: 이희걸 안수집사 (714-337-3091)

- 미국 나바호 인디언 성탄절 행사 (12/12-12/14)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서해란 권사 (714-496-6922)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